

2018년 5월 9일

csf@kiep.go.kr

최근 미중무역협상에 대한 중국 내 반응 및 평가

- 중국과 미국의 경제 대표단은 5월 3일~4일 이틀 간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을 진행
 - 본 협상은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므누신 재무 장관,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(USTR) 대표, 윌버 로스 상무장관,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 등이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
 - 중국측은 류허(刘鹤) 부총리, 중산(钟山) 상무부장, 류쿤(刘昆) 재정부장, 추이텐카이(崔天凯) 주미 중국대사 등이 참석하여, 양국 모두 최고위급 인사로 대표단을 구성할 정도로 무역 분쟁 해결에 큰 관심을 보임.
 - 주요 의제는 무역 불균형, 서비스 무역 개방, 지식재산권 보호, 관세 및 비관세 장벽, 불평등한 경쟁 환경 등이었음.
 - 협상 결과, 양국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인식을 공유했지만 주요 의제에서는 의견 차이를 재차 확인
- 양국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 유지가 상호 중요하며 대화를 통한 점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무역 불균형 해소,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이견을 확인
 -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,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확대, 지적재산권 보호, 관세·비관세 장벽 등 중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향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
 - 중국측은 중상통신(ZTE) 사안에 대해 미국에게 엄중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며, 미국측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.
 -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중국의 보조금에 기반한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'중국제조 2025' 전략 산업에 대한 우대 조치의 수정과 함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및 농업·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을 촉구
 - 미국은 중국이 대미국 무역흑자 규모를 2018년 6월 이후 1년마다 1,000억 달러씩 줄여, 2020년까지 2,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을 요구

- 한편, 중국은 자국의 산업 전략을 수정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미국이 소비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맞서며 미국의 무역불균형 개선 요구에 이견을 표출
 - 이와 함께 외국기업의 지분 비중 확대,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등 최근 중국이 시행한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강조
-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음에 이번 협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, 무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함을 서로 깨닫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
 - 신화사(新华社)는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응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의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전하며, 이번 협상을 진술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이라고 평가
 - 인민일보(人民日报)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, 미국과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고 개방은 지속될 것이라 전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
 - 환구시보(环球时报)는 끝내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, 무역 갈등 해결의 큰 축을 전쟁과 대화 중에서 대화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평가
 -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대미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여 미국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진단
 - 미국의 경제무역 관료들이 대거 방중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, 미국이 통상법 301조와 관세로 중국을 위협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
 -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왕용(王勇) 교수는 양국은 협력 동반자로서 경제적 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했다고 평가
 -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에 관해서는 미국의 기업과 상품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며, 향후 중국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- 그러나 세계 최대의 양대 경제체가 단 2일의 협상으로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예측대로 이번 협상은 결국 대타협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미중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
 - 중국 민항총국(CAAC)이 4월 25일 미국 항공사를 비롯한 외국 국적 항공사 36곳에 공문을 보내 대만·홍콩·마카오가 중국과 별개 국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의 삭제를 요구하자, 백악관은 미중협상이 끝난 직후에 이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정치적 입장 강요라고 비판
 - 중국 외교부는 백악관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“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항공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”라고 맞대응함.
 - 동방일보(东方日报)는 “중국은 전쟁으로 평화를 구하면 평화롭게 공존하지만, 타협으로 평화를 구걸하면 평화는 없다”는 원칙에 서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이 전쟁과 공멸 모두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인다면 미·중간 시소게임은 결국 평화로운 교섭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망
 -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이 토지가격, 대출이자, 시장 진입 및 재정 보조금 등에서 국유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, 중국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(CFIUS)가 기업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중국의 투자를 막고 있다고 주장
 -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실 동연(东艳) 주임은 기존의 역사와 향후 국제정세를 볼 때, 무역에 있어 양국의 구조적 문제는 불가피하며,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기회가 되거나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진단
 - 양국의 의견 불일치와 마찰은 정상적이며, 함께 조정해 나가려는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

- 일각에서는 중국측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미국의 자국 중심적 보호무역 주의를 우려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수호
-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쭈바오량(祝宝良)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민간 고정자산투자 중 외자 부문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 내 경영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
 - 공업정보화부 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 쉬청진(徐程锦) 연구원은 기술이전 강요로 인한 이익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, 앞으로 외자기업의 경영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
 - 한편, 경제시보(经济时报)는 국민의 핵심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국의 기본입장이며, 미중 양국이 '구동존이(求同存异, 상호 차이 인정 및 공동 이익 추구)'의 자세와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, 자유무역과 세계경제 균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조
 - 대외경제무역대학 WTO연구원 투신취안(屠新泉) 원장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을 구매하여 이를 중국에서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장 행위로, 미국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평등·진실·이성·실용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
 - 환구시보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진흥 계획인 '중국제조 2025'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국가 발전 계획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윈윈(win-win)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.
 - 국제무역학회 중미유럽경제전략연구센터 리용(李永) 대표는 세계화 시대에 상대에게 압력을 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방적인 방법은 산업체인 근간을 흔들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
 - 광둥대외언어무역대학 국제관리혁신연구원 짜오룽위예(赵龙跃) 원장은 중미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하며, 서로 상이한 자원 우위를 보완하는데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

참고문헌

「就业扶持政策解读」, 『市人社局网站』 2017-07-04

「中国经济网」, 「刚刚, 中美经贸磋商有了新进展!」, 2018-05-04.

「新华社」, 「分析 | 中美经贸磋商传递的信号」, 2018-05-05.

「经济日报」, 「捍卫核心利益 寻求最大共识」, 2018-05-05.

「财经」, 「互探底线! 中美贸易谈判结束, 根本分歧难解」, 2018-05-05.

「环球时报」, 「社评: 中美磋商落幕, 贸易冲突朝谈判倾斜」, 2018-05-05.

「申万宏源宏观」, 「开拓沟通大于寻求方案——中美贸易谈判的目的、共识与分歧」, 2018-05-06.

「新华社」, 「新华社评中美贸易磋商: 将坦诚沟通进行到底」, 2018-05-06.

(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)